WEBVTT

00:00:09.598 --> 00:00:12.084
안녕하십니까?
역사에 미치다, 서익환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184 --> 00:00:16.355
우리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
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6.455 --> 00:00:18.238
여러분, 지난 시간 기억나죠?

00:00:18.338 --> 00:00:20.524
지난 시간에 정말
많은 거를 했단다.

00:00:20.624 --> 00:00:22.133
대외 관계 너무 중요해.

00:00:22.233 --> 00:00:26.438
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대외 관계와
관련돼서는 1번이 뭐라고?

00:00:26.538 --> 00:00:28.342
거란의 요나라.

00:00:28.442 --> 00:00:30.656
몇 번 싸웠니? 3번.

00:00:30.756 --> 00:00:33.453
1차는 서희의 외교
담판, 강동 6주.

00:00:33.553 --> 00:00:39.331
2차는 양규의 선전 3차가 그
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.

00:00:39.431 --> 00:00:40.771
이렇게 가는 거였죠.

00:00:40.871 --> 00:00:45.528
그리고 여진의 금나라와는
그러니까 여진족일 때는

00:00:45.628 --> 00:00:47.076
우리가 가서 때렸단 말이야.

00:00:47.176 --> 00:00:50.942
뭐를 결성해서? 윤관의
별무반, 기억나죠?

00:00:51.042 --> 00:00:56.314
그러다가 여진족이 부족을
규합해서 금나라를 만들어버렸죠.

00:00:56.414 --> 00:00:57.582
어떻게 됐습니까?

00:00:57.682 --> 00:00:59.457

우리는 그냥 무릎 꿇었지.

00:00:59.557 --> 00:01:02.458
무릎은 한 번 꿇으면
여러 번 꿇게 된단다.

00:01:02.558 --> 00:01:10.396
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
자존감을 살렸으면 좋겠어.

00:01:10.496 --> 00:01:12.953
그런데 꿇을 때는 또 꿇어야 돼.

00:01:13.053 --> 00:01:19.987
선생님처럼 무릎 꿇을 데 분간없이
막 다니다가는 더 재밌어져요.

00:01:20.087 --> 00:01:23.261
그래서 이자겸은 무릎을
꿇었다는 거야, 사대 관계로.

00:01:23.361 --> 00:01:26.292
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.

00:01:26.392 --> 00:01:29.446
왜? 저쪽에서 육포 뜯어먹으면서
오던 애가 있었죠.

00:01:29.546 --> 00:01:32.610
몽골, 징기스칸에 의해서 얘네들이,

00:01:32.710 --> 00:01:35.374
그러니까 몽골에 의해서
다 무너지게 되었다.

00:01:35.474 --> 00:01:38.706
그리고 그 결과 고려는
반식민지가 되었다.

00:01:38.806 --> 00:01:40.270
여기까지 봤습니다.

00:01:40.370 --> 00:01:43.736
그리고 기타사항으로 대외
관계 살짝 짚어보면서

00:01:43.836 --> 00:01:46.435
고려 후기의 정치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46.535 --> 00:01:50.085
기타사항은 대외 관계와 관련돼서인데

00:01:50.185 --> 00:01:52.308
첫 번째는 홍건적이야.

00:01:52.408 --> 00:01:57.339
이 홍건적은 중국의
농민 반란이 일어나요.

00:01:57.439 --> 00:02:00.809

그래서 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

00:02:00.909 --> 00:02:04.688
얘네들이 쫓기다 쫓기다
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

00:02:04.788 --> 00:02:07.691
고려로 쳐들어오게 된단다.

00:02:07.791 --> 00:02:09.884
그러면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?

00:02:09.984 --> 00:02:13.986
이 홍건적이 두 차례
침입을 하게 되는데

00:02:14.086 --> 00:02:17.316
1차는 어찌 어찌 막아냅니다.

00:02:17.416 --> 00:02:23.484
이방실과 이승경, 이렇게 해서
홍건적의 난을 격퇴를 해요.

00:02:23.584 --> 00:02:27.614
그런데 2차 침입은 이거는
너무 무서웠던 거야.

00:02:27.714 --> 00:02:32.111
그래서 이 홍건적의 침입을
결국 격퇴를 했으나

00:02:32.211 --> 00:02:33.962
안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

00:02:34.062 --> 00:02:37.535
공민왕이 도망을 간단다.
어디로? 복주.

00:02:37.635 --> 00:02:42.861
이 복주가 지금의 어느
지방이냐면 경상북도 안동.

00:02:42.961 --> 00:02:45.144
안동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.

00:02:45.244 --> 00:02:48.030
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을 겪었다.

00:02:48.130 --> 00:02:52.786
그리고 공민왕은 근거지를
옮기기도 했다, 기억하시고요.

00:02:52.886 --> 00:02:55.740
그다음에 왜구입니다.

00:02:55.840 --> 00:02:58.797
이 왜놈들이 계속
침입을 하는 거야.

00:02:58.897 --> 00:03:00.790
우리나라가 엄청 강해.

00:03:00.890 --> 00:03:03.006
강하면 얘네들 안 들어오겠죠.

00:03:03.106 --> 00:03:05.090
그런데 지금은 고려 말이란다.

00:03:05.190 --> 00:03:09.633
이 고려 말 상황이 되면서 왜구의
노략질이 더 많아졌다는 거.

00:03:09.733 --> 00:03:12.637
그래서 이 우왕 시기가 되면,

00:03:12.737 --> 00:03:15.513
이 우왕은 뭐냐면
이따가 설명드릴게요.

00:03:15.613 --> 00:03:17.620
이 우왕은 공민왕은 다음이야.

00:03:17.720 --> 00:03:21.099
그래서 이 우왕 때 왜구의
침입을 격퇴하는 거야.

00:03:21.199 --> 00:03:24.517
그게 최영 장군이지.

00:03:24.617 --> 00:03:26.689
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.

00:03:26.789 --> 00:03:33.242
그다음에 진포대첩이 있는데
이거는 누구냐면 최무선이란다.

00:03:33.342 --> 00:03:37.615
이 최무선은 뭐와 관련이
있냐면 화약이야.

00:03:37.715 --> 00:03:40.874
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거를 설치해서

00:03:40.974 --> 00:03:47.206
화포와 화약을 만들고 왜구를 소탕하는
데 기여를 했던 게 최무선이죠.

00:03:47.306 --> 00:03:52.991
그다음에 이성계, 그 유명한
이성계는 황산대첩이야.

00:03:53.091 --> 00:03:55.618
이후에 또 보도록 할게요.

00:03:55.718 --> 00:04:01.455
그리고 쓰시마섬을 정벌하는데
창왕 시기에 고려 말이죠.

00:04:01.555 --> 00:04:03.884
쓰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한다.

00:04:03.984 --> 00:04:06.442

누구를 보내서? 박위를 보내서.

00:04:06.542 --> 00:04:07.810
결론은 이래.

00:04:07.910 --> 00:04:13.927
고려 말 원간섭기, 원나라가 슬슬
무너지면서 홍건적이 쳐들어왔고.

00:04:14.027 --> 00:04:17.569
그리고 또한 왜구의 침입이 많았다,
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

00:04:17.669 --> 00:04:20.892
아직 신경쓰지 마.

00:04:20.992 --> 00:04:22.975
공민왕, 우왕, 창왕.
왜?

00:04:23.075 --> 00:04:25.212
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거거든.

00:04:25.312 --> 00:04:27.883
그래서 아직 크게 신경쓰지
않아도 되겠습니다.

00:04:27.983 --> 00:04:32.823
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
고려 후기 대외 관계,

00:04:32.923 --> 00:04:37.336
혹은 정치와 관련된 원간섭기의
고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37.436 --> 00:04:40.922
몽골이 대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지.

00:04:41.022 --> 00:04:43.468
그리고 국호를 원으로
만들게 됩니다.

00:04:43.568 --> 00:04:48.770
그래서 이 원나라가 탄생이
되고 고려를 반식민지화시켰다.

00:04:48.870 --> 00:04:50.981
원간섭기에 들어가게 된다.

00:04:51.081 --> 00:04:54.489
이때 성장한 세력이 누구니?
권문세족이 되겠죠.

00:04:54.589 --> 00:04:56.179
볼게요.

00:04:56.279 --> 00:05:00.307
이 원간섭기, 우리는 어떤 압박을

00:05:00.407 --> 00:05:04.004
그리고 어떤 수탈을

겪었는지 잘 봐야 돼.

00:05:04.104 --> 00:05:08.140
먼저 일본 원정길에 떠나게 됩니다.

00:05:08.240 --> 00:05:15.069
이 몽골은 원나라를 국호를 만들고
나서 대외 원정을 되게 많이 나가.

00:05:15.169 --> 00:05:17.298
그러면서 유럽까지 가고요.

00:05:17.398 --> 00:05:21.295
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 한반도
고려를 거의 접수했잖아요.

00:05:21.395 --> 00:05:24.230
그래서 일본까지
넘어가게 되는 거야.

00:05:24.330 --> 00:05:27.067
그래서 일본 원정길에 오릅니다.

00:05:27.167 --> 00:05:31.799
이게 뭐냐면 여·몽 연합군이야.

00:05:31.899 --> 00:05:35.793
고려, 몽골.

00:05:35.893 --> 00:05:40.654
그래서 일본 원정길에
떠나게 됩니다.

00:05:40.754 --> 00:05:42.391
두 차례나요.

00:05:42.491 --> 00:05:44.410
하지만 핵심은 여기 있단다.

00:05:44.510 --> 00:05:47.143
1차는 일본의 격렬한
저항이 있었고.

00:05:47.243 --> 00:05:51.652
또한 이런 태풍으로 좌절됩니다.

00:05:51.752 --> 00:05:53.713
그리고 또 한 번 가는 거야.

00:05:53.813 --> 00:05:57.530
그런데 이번에는 대대적인
준비를 하고 가겠죠.

00:05:57.630 --> 00:06:02.865
그래서 일본 원정 기구를
하나 만든 거야.

00:06:02.965 --> 00:06:07.255
그 기구가 뭐냐면
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.

00:06:07.355 --> 00:06:10.118
이 정동행성은 별표야.

00:06:10.218 --> 00:06:15.046
정동행성이 뭐라고?
동쪽을 정복하는 기구야.

00:06:15.146 --> 00:06:16.737
일본 원정 기구거든.

00:06:16.837 --> 00:06:19.920
그런데 정동행성을 조직해서
여·몽 연합군.

00:06:20.020 --> 00:06:22.175
고려군이 상당히 많았어요.

00:06:22.275 --> 00:06:25.228
일본에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뭐?

00:06:25.328 --> 00:06:28.212
태풍이 몰아닥치게 된 거야.

00:06:28.312 --> 00:06:30.601
결국 또 쓸려버리게 됩니다.

00:06:30.701 --> 00:06:34.090
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태풍,

00:06:34.190 --> 00:06:37.392
몽골의 침입을 막은 이 태풍을
뭐라고 했는 줄 아니?

00:06:37.492 --> 00:06:40.649
신풍이라고 이야기해,
신이 준 바람.

00:06:40.749 --> 00:06:43.844
이거를 카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.

00:06:43.944 --> 00:06:46.318
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.

00:06:46.418 --> 00:06:51.428
그런데 일본 원정에 실패는
했으나 이 부서는 남아있죠.

00:06:51.528 --> 00:06:52.909
동쪽을 정벌하는 기구.

00:06:53.009 --> 00:06:58.431
그래서 이왕 만든 김에 이
정동행성을 뭐로 이용하게 되냐면

00:06:58.531 --> 00:07:00.074
이거로 이용하게 돼.

00:07:00.174 --> 00:07:06.174
내정간섭기구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.

00:07:06.274 --> 00:07:08.635

이해 됐습니까?

00:07:08.735 --> 00:07:13.018
그리고 이제 원간섭기에 우리가 어떤
피해를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.

00:07:13.118 --> 00:07:15.830
그다음에 영토를
상실하게 되는 거죠.

00:07:15.930 --> 00:07:17.639
이 영토 상실과 관련돼서는

00:07:17.739 --> 00:07:22.350
일단 쌍성총관부, 동녕부,
탐라총관부를 설치하게 되는데

00:07:22.450 --> 00:07:24.886
이게 전부 영토가 빼앗긴 거예요.

00:07:24.986 --> 00:07:26.541
동녕부, 탐라총관부.

00:07:26.641 --> 00:07:28.003
이거 잘 봐야 돼요.

00:07:28.103 --> 00:07:32.496
지도가 이렇게 있으면
한반도 지도죠?

00:07:32.596 --> 00:07:35.815
그리고 이렇게 해서
고려의 영토가 되겠는데

00:07:35.915 --> 00:07:40.473
먼저 쌍성총관부는 이 지역이란다.

00:07:40.573 --> 00:07:42.323
잘 봐야 돼.

00:07:42.423 --> 00:07:46.622
쌍성총관부, 여기를
빼앗기게 됩니다.

00:07:46.722 --> 00:07:52.885
그다음에 동녕부는 자비령
이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

00:07:52.985 --> 00:07:54.448
대충 이쪽 지역이야.

00:07:54.548 --> 00:07:57.028
황해도 이쪽 지역입니다.

00:07:57.128 --> 00:08:01.991
그래서 이쪽이 동녕부,
잘 기억해요.

00:08:02.091 --> 00:08:05.133
그리고 탐라총관부, 이거는
안 써도 되겠죠.

00:08:05.233 --> 00:08:07.210
탐라가 어디니? 제주도야.

00:08:07.310 --> 00:08:13.733
그러면 이 제주도에 탐라총관부가
이렇게 설치가 된 거야.

00:08:13.833 --> 00:08:19.618
이게 마치 원나라의 영역처럼
통치가 되었다는 거죠.

00:08:19.718 --> 00:08:21.817
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?

00:08:21.917 --> 00:08:26.311
여기 이해돼요,
쌍성총관부, 내륙이니까.

00:08:26.411 --> 00:08:30.124
그리고 황해도, 자비령
이북, 동녕부 이해돼.

00:08:30.224 --> 00:08:35.844
그런데 문제는 왜 제주도까지
가서 여기를 잡아먹었냐는 거죠.

00:08:35.944 --> 00:08:41.192
여러분, 무신집권기 때
누가 쳐들어왔습니까?

00:08:41.292 --> 00:08:43.317
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죠.

00:08:43.417 --> 00:08:47.770
그런데 여기에 끈질기게
저항했던 부대가 있죠.

00:08:47.870 --> 00:08:50.451
그 부대가 뭐? 삼별초.

00:08:50.551 --> 00:08:55.745
이 삼별초는 강화도부터 시작해서
진도, 어디까지 갔다?

00:08:55.845 --> 00:09:00.039
제주도까지 이렇게
이동을 했던 거야.

00:09:00.139 --> 00:09:03.185
그래서 이거를 진압해야 되겠죠.

00:09:03.285 --> 00:09:07.269
여·몽 연합군이 이 삼별초의
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

00:09:07.369 --> 00:09:09.990
제주도까지 갔던 겁니다.

00:09:10.090 --> 00:09:15.033
그런데 이 몽골 애들이

제주도에 딱 왔더니

00:09:15.133 --> 00:09:17.813
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.

00:09:17.913 --> 00:09:19.342
뭐를 갖고 싶었겠습니까?

00:09:19.442 --> 00:09:21.286
뻔해, 말이죠.

00:09:21.386 --> 00:09:25.611
그래서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
말이 있죠, 조랑말.

00:09:25.711 --> 00:09:30.882
조랑말이 작은데도 되게 힘도
세고 머리도 상당히 좋아요.

00:09:30.982 --> 00:09:36.144
그래서 나 저거 가지고 싶어
하면서 여기를 집어삼킨 거예요.

00:09:36.244 --> 00:09:40.126
탐라총관부를 설치해서
조랑말을 싹 끌고 간 거야.

00:09:40.226 --> 00:09:44.893
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
남아있는 조랑말은

00:09:44.993 --> 00:09:48.807
제가 알기로는, 정확하지는 않지만
이게 복원된 거라고 이야기해요.

00:09:48.907 --> 00:09:51.622
왜냐하면 싹 가져가버렸거든.

00:09:51.722 --> 00:09:54.574
그때 거의 멸종 위기였다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09:54.674 --> 00:09:58.588
그래서 제주도 조랑말 때문에
탐라총관부를 설치했다.

00:09:58.688 --> 00:10:00.172
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

00:10:00.272 --> 00:10:02.217
다 가져갔어, 그러면
이제 제주도 필요없잖아.

00:10:02.317 --> 00:10:05.384
그래서 이거를 돌려줘버립니다,
탐라총관부를.

00:10:05.484 --> 00:10:07.683
야, 됐다 이제는 너네 해라.

00:10:07.783 --> 00:10:10.290

그리고 이쪽 지역, 별
쓸 데가 없었거든.

00:10:10.390 --> 00:10:12.164
이쪽 지역도 돌려줘버려.

00:10:12.264 --> 00:10:14.448
그런데 이쪽 지역 있지?

00:10:14.548 --> 00:10:17.909
여기 철령 이북에
쌍성총관부 보이지?

00:10:18.009 --> 00:10:20.964
여기는 안 돌려줘, 절대로.

00:10:21.064 --> 00:10:28.672
그러면 이 쌍성총관부를 다시
우리가 획득을 한 거예요.

00:10:28.772 --> 00:10:31.275
어떻게? 우리 힘으로,
우리 스스로.

00:10:31.375 --> 00:10:35.268
그래서 늘 이
쌍성총관부를 회복하였다.

00:10:35.368 --> 00:10:38.529
이게 또 맨날 시험
문제가 되는 거죠.

00:10:38.629 --> 00:10:44.343
그러면 누구 때 여기를
공격해서 원나라를 몰아냈는가.

00:10:44.443 --> 00:10:46.576
여기 나올 거야.

00:10:46.676 --> 00:10:49.958
공민왕 때 반환이 된다.

00:10:50.058 --> 00:10:56.316
그리고 이런 동녕부나
탐라총관부는 언제 반환이 되냐면

00:10:56.416 --> 00:11:00.546
충렬왕 때 그냥
줘버려, 돌려줘버려요.

00:11:00.646 --> 00:11:05.410
제주도 가면 조랑말 볼
기회가 있을 거야.

00:11:05.510 --> 00:11:08.545
어떻게 생긴지는 알죠?

00:11:08.645 --> 00:11:12.381
선생님이 고등학교 때까지
제주도에서 살았거든.

00:11:12.481 --> 00:11:15.220
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
서울로 올라왔어.

00:11:15.320 --> 00:11:18.198
저도 잘 본 적은 없어요.

00:11:18.298 --> 00:11:22.494
그런데 선생님이 대학 처음
왔을 때 어땠는지 아니?

00:11:22.594 --> 00:11:26.661
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
제주도에 노래방 있어?

00:11:26.761 --> 00:11:28.588
있다니까, 있어.

00:11:28.688 --> 00:11:32.721
그리고 햄버거 가게 그거 있냐?

00:11:32.821 --> 00:11:36.204
없었어, 그거는 없어.

00:11:36.304 --> 00:11:39.759
그래서 선생님이 막
뻥을 치는 거죠.

00:11:39.859 --> 00:11:42.546
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.

00:11:42.646 --> 00:11:47.363
우리는 고등학교 다닐
때 말 타고 다녔다.

00:11:47.463 --> 00:11:49.421
1인 1마였다.

00:11:49.521 --> 00:11:53.326
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
먹고 말 밥도 주러가고

00:11:53.426 --> 00:11:56.420
말똥도 치우고 그렇게 살았다.

00:11:56.520 --> 00:12:00.250
그리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었고
돌담집 있지, 제주도에?

00:12:00.350 --> 00:12:03.771
이렇게 살고 있다,
이렇게 뻥을 쳤죠.

00:12:03.871 --> 00:12:06.408
아니거든, 나도 버스
타고 다녔고요.

00:12:06.508 --> 00:12:09.886
그리고 우리집 아파트야.

00:12:09.986 --> 00:12:12.138

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

00:12:12.238 --> 00:12:15.747
그런데 지금은 워낙에
제주도가 핫하죠.

00:12:15.847 --> 00:12:20.393
그래서 많이 많이 왔다갔다
거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.

00:12:20.493 --> 00:12:23.662
예전에는 제주도 온
친구들이 좀 적었어.

00:12:23.762 --> 00:12:27.466
그래서 계속 놀려먹는 거예요.

00:12:27.566 --> 00:12:29.820
그리고 제일 짜증나는
게 뭔지 아니?

00:12:29.920 --> 00:12:31.325
사투리 써봐.

00:12:31.425 --> 00:12:32.891
뭐 어쩌라고.

00:12:32.991 --> 00:12:36.829
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,
조랑말 잘 못 봤어.

00:12:36.929 --> 00:12:42.445
그런데 실제 우리 외가
쪽에는 말이 있었어.

00:12:42.545 --> 00:12:48.253
목축업 이런 게 아니고
그냥 한 마리가 있었어.

00:12:48.353 --> 00:12:50.359
그거 왜 샀는지 몰라.

00:12:50.459 --> 00:12:55.808
결국 어느 날 어머니가 고기를
잔뜩 가지고 왔더라고.

00:12:55.908 --> 00:12:59.135
그러면서 먹으래, 소고기래.

00:12:59.235 --> 00:13:01.231
질겨, 말고기였습니다.

00:13:01.331 --> 00:13:05.232
걔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

00:13:05.332 --> 00:13:07.180
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

00:13:07.280 --> 00:13:10.455
그래서 탐라총관부,
삼별초와 연결시키면 쉬워.

00:13:10.555 --> 00:13:13.431
이렇게 영토까지 상실이 되었다.

00:13:13.531 --> 00:13:16.791
핵심은 맨날 나오는 핵심은 뭐다?
쌍성총관부야.

00:13:16.891 --> 00:13:19.741
누구 때 무력으로?

00:13:19.841 --> 00:13:23.091
공민왕 때 무력으로,
핵심 중에 핵심.

00:13:23.191 --> 00:13:26.838
그다음에 또 관제격하가 있습니다.

00:13:26.938 --> 00:13:31.285
관제격하는 뭐냐면
원나라가 위의 나라지.

00:13:31.385 --> 00:13:34.915
그러니까 우리보다 상북이라는
표현을 합니다.

00:13:35.015 --> 00:13:36.754
우리는 밑의 국가야.

00:13:36.854 --> 00:13:42.085
그러니까 공직 체계도 공무원
시스템도 다 낮춰버리게 됩니다.

00:13:42.185 --> 00:13:43.358
어떻게요?

00:13:43.458 --> 00:13:46.227
먼저 첫 번째, 부마국이야.

00:13:46.327 --> 00:13:48.681
부마가 뭐냐면 사위야.

00:13:48.781 --> 00:13:54.031
원나라 공주와 고려 왕은
서로 결혼을 했습니다.

00:13:54.131 --> 00:13:58.133
그래서 우리는 부마국으로
떨어지는 거야, 사위의 국가로.

00:13:58.233 --> 00:13:59.624
누구 때부터?

00:13:59.724 --> 00:14:02.077
렬 자가 누구겠니.

00:14:02.177 --> 00:14:07.217
충렬왕이야.

00:14:07.317 --> 00:14:11.824
그리고 이 충렬왕이

1호 부마였습니다.

00:14:11.924 --> 00:14:14.653
사위 국가로 전락했다는 거죠.

00:14:14.753 --> 00:14:16.105
그리고 앞에 봐봐.

00:14:16.205 --> 00:14:19.573
앞으로 나올 왕들이 거의 다
충 자를 쓰고 있어요.

00:14:19.673 --> 00:14:22.313
충이 뭐겠니? 충성이야.

00:14:22.413 --> 00:14:25.770
그래서 이런 비극이 있었다.

00:14:25.870 --> 00:14:32.662
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관제격하에서
중서문하성이 있었죠, 2성 6부.

00:14:32.762 --> 00:14:34.915
그다음에 상서성이 있었어.

00:14:35.015 --> 00:14:40.164
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하나로
합쳐서 낮춰버렸어요.

00:14:40.264 --> 00:14:43.180
그게 첨의부가 됩니다.

00:14:43.280 --> 00:14:50.799
2성을 어떻게 했다?
첨의부로 낮춰버린 거야.

00:14:50.899 --> 00:14:57.583
2성 6부였지? 중앙
시스템 기억나시죠?

00:14:57.683 --> 00:15:03.642
2성에서 성이 높니? 부가 높니?

00:15:03.742 --> 00:15:08.870
성이 더 높은 관직이야, 높은
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

00:15:08.970 --> 00:15:11.562
관직 체계.

00:15:11.662 --> 00:15:13.626
그래서 이 성이 높거든.

00:15:13.726 --> 00:15:14.656
그런데 봐봐.

00:15:14.756 --> 00:15:17.793
중서문하성, 상서성, 2성이지?

00:15:17.893 --> 00:15:20.068
그런데 뭐로 낮아졌어?

부로 낮아진 거야.

00:15:20.168 --> 00:15:22.878
그래서 너네는 성을 둘
수 없다는 거지.

00:15:22.978 --> 00:15:25.537
뭐야? 너네는 부로
넘어갔다는 거야.

00:15:25.637 --> 00:15:28.693
그래서 뭐로? 2성이 첨의부로.

00:15:28.793 --> 00:15:31.077
그러면 기존의 6부는
어떻게 되었는가?

00:15:31.177 --> 00:15:33.664
기존의 6부는 이것도
낮아지는 거야.

00:15:33.764 --> 00:15:38.550
뭐로? 4사로 이렇게 낮아진 거야.

00:15:38.650 --> 00:15:40.880
한 칸씩 더 밑으로
내려버린 거예요.

00:15:40.980 --> 00:15:45.539
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는
않았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돼.

00:15:45.639 --> 00:15:50.416
2성 6부를 첨의부와
4사로 낮춰버렸다.

00:15:50.516 --> 00:15:52.601
됐을 거고요.

00:15:52.701 --> 00:15:55.366
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

00:15:55.466 --> 00:15:59.861
고려 후기 원간섭기의 정치와
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5:59.961 --> 00:16:03.705
앞서 이야기했지만 내정간섭을
하기 시작했다.

00:16:03.805 --> 00:16:06.345
원래는 일본정벌기구였어.

00:16:06.445 --> 00:16:10.218
일본정벌기구였는데 뭐로? 그냥
내정간섭기구로 바꿔버린 거예요.

00:16:10.318 --> 00:16:12.419
그리고 봐봐.

00:16:12.519 --> 00:16:14.436

뭐니? 성이야.

00:16:14.536 --> 00:16:16.562
몽골 애들이 설치한 거거든.

00:16:16.662 --> 00:16:19.896
그다음에 다루가치.

00:16:19.996 --> 00:16:23.706
여러분, ~치로 끝나는
말이 있습니다.

00:16:23.806 --> 00:16:29.195
가장 대표적인 게 양O치가 되겠죠.

00:16:29.295 --> 00:16:31.123
그런데 그거 아니야.

00:16:31.223 --> 00:16:35.872
이 ~치는 몽골어로
~하는 사람이야.

00:16:35.972 --> 00:16:39.410
이런 이야기 들어봤니? 벼슬아치.

00:16:39.510 --> 00:16:41.661
치가 들어갔죠, 몽골어야.

00:16:41.761 --> 00:16:44.454
장사치, 장사하는 사람.

00:16:44.554 --> 00:16:48.752
이런 ~치가 들어오면 몽골이거든.

00:16:48.852 --> 00:16:54.618
다루가치는 뭐냐? 몽골에서
보낸 지방 행정관이야.

00:16:54.718 --> 00:16:58.313
몽골에서 고려로 보낸
간섭하는 사람이야.

00:16:58.413 --> 00:17:02.081
이렇게 내정간섭을 했단다,
다루가치를 파견하면서.

00:17:02.181 --> 00:17:03.629
그다음에 수탈합니다.

00:17:03.729 --> 00:17:08.731
수탈과 영향인데, 먼저 몽골 애들이

00:17:08.831 --> 00:17:12.896
고려의 여인들을 상당히
좋아했다고 이야기합니다.

00:17:12.996 --> 00:17:17.677
우리나라가 상당히 외모가
좋은 나라잖아.

00:17:17.777 --> 00:17:22.975

그리고 동아시아에서
이렇게 잘 생기고

00:17:23.075 --> 00:17:28.401
잘난 사람들이 많은 게
우리나라죠, 잘 꾸미고.

00:17:28.501 --> 00:17:35.534
몽골 애들이 고려의 여인을 되게
좋아해서 약탈을 한 거야.

00:17:35.634 --> 00:17:38.706
뭐를 설치해서?
결혼도감을 설치해서.

00:17:38.806 --> 00:17:42.299
그래서 공녀로 징발을 해갑니다.

00:17:42.399 --> 00:17:46.781
그러면 이렇게 고려의 여인들이
징발당해서 간 거지.

00:17:46.881 --> 00:17:49.406
어떤 일을 겪었겠습니까?

00:17:49.506 --> 00:17:54.172
몽골에 원치않게
넘어가서 기생이 되거나

00:17:54.272 --> 00:17:59.240
혹은 첩이 되는
거예요, 몽골 관리에.

00:17:59.340 --> 00:18:02.212
이 여성들을 약탈을 했던 거야.

00:18:02.312 --> 00:18:03.980
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였습니다.

00:18:04.080 --> 00:18:07.743
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
자기 딸이 몽골 애들,

00:18:07.843 --> 00:18:12.462
저 오랑캐들한테 잡혀가는데
가만 두고 보지는 않겠죠.

00:18:12.562 --> 00:18:17.463
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
조혼이 일어나.

00:18:17.563 --> 00:18:21.235
조혼, 해석해볼까요?

00:18:21.335 --> 00:18:25.614
이거는 나중에 사회에서 나오겠지만
일찍 혼인시켜버립니다.

00:18:25.714 --> 00:18:30.718
7살이 되면 혼례를
치뤄버리는 거야.

00:18:30.818 --> 00:18:32.936
그래야 안 뺏기니까.

00:18:33.036 --> 00:18:41.164
하지만 뺏긴 부모들은 압록강 유역까지
막 쫓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.

00:18:41.264 --> 00:18:42.734
다시는 못 보니까.

00:18:42.834 --> 00:18:47.979
그리고 이렇게 공녀로 징발되었다가 원나라
왕실에 황후가 된 사람이 있어요.

00:18:48.079 --> 00:18:52.903
그 사람이 누구냐, 기황후.

00:18:53.003 --> 00:18:55.081
예전에 드라마가 있었죠.

00:18:55.181 --> 00:18:58.882
예전에 기황후라는 드라마가
있었는데 이때 기황후가 누구냐.

00:18:58.982 --> 00:19:00.036
하지원이었습니다.

00:19:00.136 --> 00:19:02.581
그래서 그때는 기황후가 누구야?
하지원이요.

00:19:02.681 --> 00:19:05.657
안 돼, 기황후.

00:19:05.757 --> 00:19:09.930
그리고 이 기황후는 원나라
황실의 황후잖아.

00:19:10.030 --> 00:19:14.764
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기황후를
약간 미화를 했습니다.

00:19:14.864 --> 00:19:21.322
왜냐하면 공녀로 갔다가 모진 고생을
하면서 황후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.

00:19:21.422 --> 00:19:24.025
그 노력, 그래 그거는 둘째 쳐.

00:19:24.125 --> 00:19:26.701
얘네 집안이 고려를
어떻게 했는 줄 아니?

00:19:26.801 --> 00:19:31.375
이쪽의 오라버니인가가 기철이에요.

00:19:31.475 --> 00:19:35.953
원나라 왕실의 황후예요.

00:19:36.053 --> 00:19:39.503

고려에는 일가 기철이 있어요.

00:19:39.603 --> 00:19:43.280
기철이 전횡을 일삼게 됩니다.

00:19:43.380 --> 00:19:49.153
되게 나쁜 놈들입니다, 알고 보면.

00:19:49.253 --> 00:19:51.217
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
00:19:51.317 --> 00:19:53.804
그래서 공녀 징발 됐죠?

00:19:53.904 --> 00:19:55.534
그래서 조혼풍속까지.

00:19:55.634 --> 00:19:57.593
그다음에 응방을 설치합니다.

00:19:57.693 --> 00:20:00.316
응방 혹은 이런 표현도 써요.

00:20:00.416 --> 00:20:06.877
해동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
이 응방은 또 뭐냐?

00:20:06.977 --> 00:20:11.106
매를 징발하는 거야.

00:20:11.206 --> 00:20:13.862
그런데 왜 이게 수탈이냐.

00:20:13.962 --> 00:20:16.063
매가 어디에 쓰일까.

00:20:16.163 --> 00:20:19.450
때리는 매 말고 날아다니는 매.

00:20:19.550 --> 00:20:21.507
몽골 애들의 연락 수단이지.

00:20:21.607 --> 00:20:25.160
응방을 설치했어.

00:20:25.260 --> 00:20:29.471
선생님이 농민이야,
그런데 매 잡아오래요.

00:20:29.571 --> 00:20:32.872
나 어디 가서 잡니?
내가 매를 어떻게 잡니.

00:20:32.972 --> 00:20:36.320
그러면 내가 활을 쏠까?

00:20:36.420 --> 00:20:40.651
걔네들이 매 고기를 먹고 싶은 거니?
살아있는 매를 갖고 싶은 거니?

00:20:40.751 --> 00:20:42.794

살아있는 매를 갖고 싶은 거예요.

00:20:42.894 --> 00:20:51.564
그래서 농민들은 농한기가 되면,
겨울이 되면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.

00:20:51.664 --> 00:20:57.042
산으로 올라가서 먹이를 놓고
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.

00:20:57.142 --> 00:20:58.895
매가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.

00:20:58.995 --> 00:21:03.164
그런데 매가 얼마나 영악한 놈인데
거기를 알면서 들어가겠니?

00:21:03.264 --> 00:21:04.477
안 들어가요.

00:21:04.577 --> 00:21:06.610
그러니까 완전 초죽음이 되는 거야.

00:21:06.710 --> 00:21:09.016
겨울만 되면 매를
잡으러 돌아다니니까.

00:21:09.116 --> 00:21:10.937
엄청난 수탈이지.

00:21:11.037 --> 00:21:13.429
그다음에 당연합니다.

00:21:13.529 --> 00:21:15.929
금, 은, 인삼 이런
것들 다 가져가죠.

00:21:16.029 --> 00:21:17.577
우리의 자원들.

00:21:17.677 --> 00:21:20.331
그리고 몽골풍이
유행하기도 하는 거야.

00:21:20.431 --> 00:21:22.109
몽골의 풍속.

00:21:22.209 --> 00:21:24.636
연지곤지, 몽골 거야.

00:21:24.736 --> 00:21:27.614
쪽두리, 몽골 거가 되겠습니다.

00:21:27.714 --> 00:21:30.787
그리고 고려양도 있단다.

00:21:30.887 --> 00:21:33.693
고려양은 이렇게
생각해도 돼, 한류.

00:21:33.793 --> 00:21:37.920

이 몽골 안에서도 고려의
풍속이 유행하게 됩니다.

00:21:38.020 --> 00:21:42.880
그것을 우리는
고려양이라고 이야기해.

00:21:42.980 --> 00:21:47.886
몽골풍 유행하고 고려양도 있었다.

00:21:47.986 --> 00:21:53.805
이 몽골풍 같은 경우는 지금
여러분 많이 먹는 샤브샤브,

00:21:53.905 --> 00:21:57.631
그게 전형적인 유목민족의
음식이 되겠습니다.

00:21:57.731 --> 00:21:59.077
샤브사브 뭐하는 거니?

00:21:59.177 --> 00:22:02.710
물 넣고 끓여서 이렇게
넣고 먹는 거 아니니.

00:22:02.810 --> 00:22:05.841
왜? 바쁘니까 그렇게 먹는 거야.

00:22:05.941 --> 00:22:08.685
육포? 육포는 전투 식량이야.

00:22:08.785 --> 00:22:11.841
전투 식량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.

00:22:11.941 --> 00:22:17.663
전쟁하는데 밥솥 얹고
언제 먹니, 안 되잖아.

00:22:17.763 --> 00:22:20.050
그래서 육포 뜯어먹고 다니는 거야.

00:22:20.150 --> 00:22:25.354
육포가 고기 말린 거죠, 소고기
말려서 말 안장에 놓고 그러다보면

00:22:25.454 --> 00:22:27.060
건조하니까 이게 마르는 거예요.

00:22:27.160 --> 00:22:28.459
이거 뜯어 먹고 다니는 거예요.

00:22:28.559 --> 00:22:29.451
이게 전투 식량이야.

00:22:29.551 --> 00:22:31.269
전투 식량이 있어야 대제국을
만들 수 있습니다.

00:22:31.369 --> 00:22:33.143
똑같은 게 있어.

00:22:33.243 --> 00:22:38.388
여러분, 바이킹 있지? 바이킹도
유럽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버리거든.

00:22:38.488 --> 00:22:40.352
대규모 원정 막 가면서.

00:22:40.452 --> 00:22:41.879
그러면 전투 식량이 필요해.

00:22:41.979 --> 00:22:45.756
걔네들이 아마 명태포인지
대구포인지 모르겠어.

00:22:45.856 --> 00:22:48.732
아마 대구포일 것
같아요, 바다니까.

00:22:48.832 --> 00:22:50.044
바이킹은 바다잖아.

00:22:50.144 --> 00:22:55.793
그래서 이런 대구포, 혹은 명태포를
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전쟁했다니까.

00:22:55.893 --> 00:22:57.572
전투 식량이 필요하죠.

00:22:57.672 --> 00:22:59.332
밥해 먹고 다니면 져.

00:22:59.432 --> 00:23:02.733
이런 수탈 영향도 있었다.

00:23:02.833 --> 00:23:05.106
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탈에 대해서,

00:23:05.206 --> 00:23:09.492
정동행성은 별 들어왔어요,
너무 중요해.

00:23:09.592 --> 00:23:11.551
정동행성, 내정간섭기.

00:23:11.651 --> 00:23:14.802
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
뭐를 해야 되겠습니까?

00:23:14.902 --> 00:23:16.784
개혁을 해야 되겠지.

00:23:16.884 --> 00:23:21.126
이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
노력이 필요하다.

00:23:21.226 --> 00:23:24.115
고려후기 개혁 정치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3:24.215 --> 00:23:26.368
먼저 충선왕이야.

00:23:26.468 --> 00:23:31.409
맨 처음이 충렬왕이었습니다.

00:23:31.509 --> 00:23:35.932
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시
왕위에 올라간 거야.

00:23:36.032 --> 00:23:38.781
이 사람이 충선왕이 돼.

00:23:38.881 --> 00:23:40.706
볼게요.

00:23:40.806 --> 00:23:44.374
충선왕, 사림원을 설치하게 됩니다.

00:23:44.474 --> 00:23:47.931
사림원은 신진사대부들을
등용하는 기구야.

00:23:48.031 --> 00:23:50.052
개혁적인 기구가 되겠고요.

00:23:50.152 --> 00:23:51.958
그다음에 소금 전매제.

00:23:52.058 --> 00:23:55.720
전매라는 표현은 국가에서
독점 판매한다는 거죠.

00:23:55.820 --> 00:23:58.889
일단 왕실에 돈이 있어야
왕권도 강화하고

00:23:58.989 --> 00:24:01.492
저 몽골 놈들을 밀어낼
거 아닙니까?

00:24:01.592 --> 00:24:03.301
그래서 소금 전매제.

00:24:03.401 --> 00:24:06.457
또한 만권당을 설치하기도 합니다.

00:24:06.557 --> 00:24:08.555
이 만권당은 어디에 있었냐?

00:24:08.655 --> 00:24:12.406
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었습니다.

00:24:12.506 --> 00:24:14.343
그러면 뭐하는 기구인가?

00:24:14.443 --> 00:24:19.625
이거는 학문연구기구가 되는 거죠.

00:24:19.725 --> 00:24:23.305
원나라에 설치한 거야.

00:24:23.405 --> 00:24:25.964

쉽지? 만권이야.

00:24:26.064 --> 00:24:28.036
책이 만 권이나 있다,
이렇게 기억하면 돼.

00:24:28.136 --> 00:24:29.840
어디에? 원나라 수도에.

00:24:29.940 --> 00:24:32.013
누가 설치했고? 고려에서 설치했다.

00:24:32.113 --> 00:24:36.300
그래서 이 만권당에서
고려인들이 학문을 연구했어.

00:24:36.400 --> 00:24:41.357
그리고 연구하고 들어와서 고려의
학문 수준을 넓히기도 합니다.

00:24:41.457 --> 00:24:44.538
조금 이따가 문화사
파트에서 나와요.

00:24:44.638 --> 00:24:47.009
만권당 기억해야 돼요.

00:24:47.109 --> 00:24:49.091
그다음에 넘어갑니다.

00:24:49.191 --> 00:24:52.832
고려후기 개혁 정치에서 공민왕으로
넘어가게 되겠습니다.

00:24:52.932 --> 00:24:55.667
애니메이션이 완전 이상하죠?

00:24:55.767 --> 00:25:00.619
이해해, 내가 고친
건데 잘못 고쳤네.

00:25:00.719 --> 00:25:03.686
공민왕 볼게요.

00:25:03.786 --> 00:25:06.983
별, 진짜 중요해요.

00:25:07.083 --> 00:25:12.074
먼저 공민왕은 이거부터 봐야 돼.

00:25:12.174 --> 00:25:17.107
이거는 쓰는 거 아니야,
그냥 이해하는 거예요.

00:25:17.207 --> 00:25:21.229
온 세상이 몽골의 세상이었습니다.

00:25:21.329 --> 00:25:22.619
그게 원나라지.

00:25:22.719 --> 00:25:28.200

이 원나라의 세력 범위를 보면
저쪽, 거의 유럽까지도 걸쳐요.

00:25:28.300 --> 00:25:30.561
여러분, 러시아 있죠?

00:25:30.661 --> 00:25:35.378
러시아 애들이 몽골 지배
하에서 100년 있었어요.

00:25:35.478 --> 00:25:38.419
엄청난 애들입니다, 몽골족이.

00:25:38.519 --> 00:25:41.900
몽골인 제일주의를 가동했고요.

00:25:42.000 --> 00:25:44.443
그리고 한족을 많이 눌렀단다.

00:25:44.543 --> 00:25:52.085
그런데 이 한족은 어디에 많이 몰려서
살고 있었냐면 이 남쪽이야.

00:25:52.185 --> 00:25:56.357
한족의 이런 사대부들,
그러니까 지주 계층들이

00:25:56.457 --> 00:26:03.084
이 남쪽에 많이 몰려 살면서
원나라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.

00:26:03.184 --> 00:26:04.243
이런 구조였어요.

00:26:04.343 --> 00:26:11.566
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남쪽의
지주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.

00:26:11.666 --> 00:26:17.850
그 사람이 그 유명한
주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.

00:26:17.950 --> 00:26:21.526
이 주원장은 별 거 아니야,
진짜 별 거 아닌 사람이거든.

00:26:21.626 --> 00:26:23.862
떠돌이 스님도 했어요.

00:26:23.962 --> 00:26:30.444
그런데 이 남쪽의 부유한 집안의
한족들을 이렇게 결합시킨 거예요.

00:26:30.544 --> 00:26:34.213
이 한족의 지주층들은
일단 돈이 많거든.

00:26:34.313 --> 00:26:36.704
그러면 병력을 어떻게 하겠니?

00:26:36.804 --> 00:26:39.174

병력을 급속도로 늘릴 수 있잖아.

00:26:39.274 --> 00:26:42.510
그래서 주원장이 연결고리가 되어서

00:26:42.610 --> 00:26:49.316
남쪽에서 이 몽골 애들을 몰아내자고
하면서 국가가 생겨버리게 됩니다.

00:26:49.416 --> 00:26:57.373
그 국가를 우리는 명나라라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26:57.473 --> 00:27:00.851
그래서 이 명나라는
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?

00:27:00.951 --> 00:27:03.444
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.

00:27:03.544 --> 00:27:06.001
이해됐죠?

00:27:06.101 --> 00:27:10.237
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
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?

00:27:10.337 --> 00:27:13.310
원·명 교체기라고
이야기를 하는 거지.

00:27:13.410 --> 00:27:16.420
그러면 원나라 힘이 약해졌네?

00:27:16.520 --> 00:27:21.019
그때 누가 있었다? 우리나라에는
공민왕이 있었던 거죠.

00:27:21.119 --> 00:27:23.316
그러면 공민왕은 뭐 하겠습니까?

00:27:23.416 --> 00:27:27.430
당연히 원나라에서 벗어나려고
노력을 하겠죠.

00:27:27.530 --> 00:27:30.991
왜? 원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.

00:27:31.091 --> 00:27:32.644
이 시기야.

00:27:32.744 --> 00:27:35.703
무슨 교체기? 원·명 교체기.

00:27:35.803 --> 00:27:40.898
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교체기였다.

00:27:40.998 --> 00:27:45.529
그래서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
실치하는데 볼게요.

00:27:45.629 --> 00:27:50.227
먼저 앞서 살짝 이야기했었죠?
기철.

00:27:50.327 --> 00:27:54.710
기철이 기황후 연결고리였지.

00:27:54.810 --> 00:27:59.017
공민왕이 일단 기철을
죽여버립니다, 숙청해버려요.

00:27:59.117 --> 00:28:04.702
그러고 나서 정방을
폐지하게 된다는 것.

00:28:04.802 --> 00:28:07.363
여러분, 정방 기억 나십니까?

00:28:07.463 --> 00:28:11.490
자기 집에 설치한 게 누구였습니까?
최우였죠.

00:28:11.590 --> 00:28:18.081
최우가 자기 집에 정방을
설치해서 인사권을 휘둘렀잖아.

00:28:18.181 --> 00:28:19.081
인사권은 뭐다?

00:28:19.181 --> 00:28:25.192
관리의 등용, 승진 파면,
이게 인사권이거든.

00:28:25.292 --> 00:28:30.919
인사권을 행하는 기구, 정방이
누가 잡아먹고 있었냐면

00:28:31.019 --> 00:28:33.705
기철이 정방을 운영하고 있었죠.

00:28:33.805 --> 00:28:37.756
그러면 이 기철은 자기 마음에
드는 애들만 다 올렸을 거야.

00:28:37.856 --> 00:28:40.055
이 부패한 권문세족들입니다.

00:28:40.155 --> 00:28:42.239
원간섭기 권문세족 기억나시죠?

00:28:42.339 --> 00:28:47.250
그래서 일단 기철을 없애버린 거야.

00:28:47.350 --> 00:28:50.183
그리고 정방을 폐지했다.

00:28:50.283 --> 00:28:55.616
정방은 인사행정기구인데 원래 이
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?

00:28:55.716 --> 00:28:58.950

왕한테 있어야 되겠죠,
그래야 왕권이 강해지겠죠.

00:28:59.050 --> 00:29:05.224
결국 이런 정방을 없애면서 왕이 직접
관리들을 뽑을 수 있게 된 거예요.

00:29:05.324 --> 00:29:07.946
그러면 어떤 애들을 뽑겠습니까?

00:29:08.046 --> 00:29:12.694
당연히 신진사대부들을
등용했던 거예요, 공민왕이.

00:29:12.794 --> 00:29:18.246
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몸이 죽고
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, 정몽주.

00:29:18.346 --> 00:29:23.370
그리고 조선 건국의
최고 공신, 정도전.

00:29:23.470 --> 00:29:25.685
그리고 이색.

00:29:25.785 --> 00:29:31.654
이색은 정몽주와
정도전의 스승격이에요.

00:29:31.754 --> 00:29:37.453
이색, 이런 신진사대부들을 대거
등용했던 게 공민왕이 됩니다.

00:29:37.553 --> 00:29:40.933
뭐를 폐지하면서?
정방을 폐지하면서.

00:29:41.033 --> 00:29:44.372
그다음에 정동행성을 폐지합니다.

00:29:44.472 --> 00:29:46.983
내정간섭기구였지.

00:29:47.083 --> 00:29:51.478
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정동행성
안에 있는 이문소를 폐지해요.

00:29:51.578 --> 00:29:54.453
이문소가 사법기구가 됩니다.

00:29:54.553 --> 00:29:58.224
반원운동을 펼치는 고려인들을
처벌했던 기구예요.

00:29:58.324 --> 00:30:00.604
이거 없애버립니다, 중요하고.

00:30:00.704 --> 00:30:03.332
그다음에 관제복구,
다시 2성 6부로.

00:30:03.432 --> 00:30:06.015
첨의부, 4사였지? 다시
돌리는 거야, 원위치로.

00:30:06.115 --> 00:30:08.872
그다음에 몽고풍 어떻게 하겠습니까?

00:30:08.972 --> 00:30:10.306
다 없애버려요.

00:30:10.406 --> 00:30:12.357
몽골 지긋지긋하다는 거죠.

00:30:12.457 --> 00:30:19.207
그리고 또 하나, 너무 중요한
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.

00:30:19.307 --> 00:30:23.134
공민왕 반원 정책.

00:30:23.234 --> 00:30:25.389
두 번째,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.

00:30:25.489 --> 00:30:30.803
처음에 우리가 강의를
시작할 때 OT를 하면서

00:30:30.903 --> 00:30:34.981
정말 역사 전문가로
만들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
00:30:35.081 --> 00:30:40.779
그리고 이 한 강의로 나중에 고3때 수능까지
다 커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.

00:30:40.879 --> 00:30:47.347
그리고 또 시험에 필요한 거는
별표로써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.

00:30:47.447 --> 00:30:50.116
흥왕사의 변.

00:30:50.216 --> 00:30:53.061
여러분, 흥왕사의
변은 몰라도 돼요.

00:30:53.161 --> 00:30:56.005
하지만 선생님이 약간
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
00:30:56.105 --> 00:30:59.817
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
이해가 되거든.

00:30:59.917 --> 00:31:05.732
원래 공민왕은 어릴 때
어디서 큰 줄 아니?

00:31:05.832 --> 00:31:09.240
원나라에서 컸어요, 몽골에서.

00:31:09.340 --> 00:31:13.312
그리고 이 공민왕의 부인이
원나라 공주예요.

00:31:13.412 --> 00:31:17.892
그 공주를 노국공주라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31:17.992 --> 00:31:20.890
그래서 원나라 왕실의 부마거든.

00:31:20.990 --> 00:31:23.765
어릴 때부터 원나라에서
교육받고 자랐습니다.

00:31:23.865 --> 00:31:29.446
그리고 원나라의 힘으로
고려의 왕이 된 거야.

00:31:29.546 --> 00:31:31.119
이게 공민왕입니다.

00:31:31.219 --> 00:31:35.969
그래서 공민왕이 즉위한
초반부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.

00:31:36.069 --> 00:31:37.982
정말 아무것도 안 해.

00:31:38.082 --> 00:31:44.380
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게
되면서 사람이 바뀌었냐면

00:31:44.480 --> 00:31:47.374
이것 때문이야, 흥왕사의
변 때문입니다.

00:31:47.474 --> 00:31:51.741
이 흥왕사는 고려
왕실에서 세운 사찰이야.

00:31:51.841 --> 00:31:56.073
사원인데, 선생님이
이렇게 이야기했지.

00:31:56.173 --> 00:31:59.092
공민왕이 도망간 적이 있어요.

00:31:59.192 --> 00:32:03.120
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피난을
갔었죠, 안동 쪽으로.

00:32:03.220 --> 00:32:07.767
그러면 안동으로, 복주로
피난을 갔다가 해결이 되니까

00:32:07.867 --> 00:32:09.049
다시 어디로 와야 돼?

00:32:09.149 --> 00:32:14.799
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

00:32:14.899 --> 00:32:20.967
그런데 돌아오는 길에
흥왕사가 있었던 거죠.

00:32:21.067 --> 00:32:22.429
그러면 뭐 하겠습니까?

00:32:22.529 --> 00:32:26.914
왕실에서 세운 사찰이니까
여기서 묵었던 거예요.

00:32:27.014 --> 00:32:29.293
공민왕이 묵었습니다.

00:32:29.393 --> 00:32:32.221
그런데 변이지, 변이 뭐니?

00:32:32.321 --> 00:32:34.511
정변이 일어난 거예요.

00:32:34.611 --> 00:32:37.649
공민왕을 끌어내리려는
반란이 일어나버린 거야.

00:32:37.749 --> 00:32:41.307
흥왕사 안에서 공민왕을
죽이려고 했던 겁니다.

00:32:41.407 --> 00:32:47.036
이때 이거를 겨우 막고
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.

00:32:47.136 --> 00:32:52.641
안 되겠다, 이 원나라 애들 보내고
그리고 왕권도 강화시켜야 되겠다.

00:32:52.741 --> 00:32:54.686
그게 흥왕상의 변 때문이에요.

00:32:54.786 --> 00:32:56.339
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.

00:32:56.439 --> 00:32:59.169
그래서 뭐를 했는가.

00:32:59.269 --> 00:33:01.057
인재를 등용합니다.

00:33:01.157 --> 00:33:03.189
그 인재가 신돈입니다.

00:33:03.289 --> 00:33:09.141
신돈을 등용해서 부서를
하나 맡기게 되는데

00:33:09.241 --> 00:33:12.304
그게 전민변정도감이 되는 거야.

00:33:12.404 --> 00:33:14.521
해석해줄게.

00:33:14.621 --> 00:33:16.781
용어 해석 쉬워.

00:33:16.881 --> 00:33:20.909
전, 밭 전이겠죠.

00:33:21.009 --> 00:33:27.133
밭 전을 해석하면 땅이야,
토지가 되겠고요.

00:33:27.233 --> 00:33:29.652
그다음에 민, 이거는 백성이잖아.

00:33:29.752 --> 00:33:31.649
백성 민 자, 사람이야 이거는.

00:33:31.749 --> 00:33:36.969
사람을, 이렇게 해석해볼까? 신분.

00:33:37.069 --> 00:33:41.498
변화시켜서 다시 정한다는 거죠.

00:33:41.598 --> 00:33:43.578
이런 개념입니다.

00:33:43.678 --> 00:33:46.683
원간섭기에 권문세족이
행패를 부리면서

00:33:46.783 --> 00:33:51.820
수많은 민중의 토지들이
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.

00:33:51.920 --> 00:33:58.042
전민변정도감은 그렇게 빼앗긴
토지를 다시 돌려주는 거야.

00:33:58.142 --> 00:34:03.141
그리고 토지만 빼앗은 게
아니라 그 지역 농민들을

00:34:03.241 --> 00:34:06.456
권문세족들은 노비로 만들어버렸어.

00:34:06.556 --> 00:34:08.658
어떻게 해줘야 돼?

00:34:08.758 --> 00:34:10.697
다시 양민으로 돌리는 거예요.

00:34:10.797 --> 00:34:13.771
그것을 우리는 전민변정도감이라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34:13.871 --> 00:34:17.397
이 중요한 부서를 누구한테 맡겼다?

00:34:17.497 --> 00:34:20.220
신돈에게 맡겼다는 거지.

00:34:20.320 --> 00:34:23.087
그래서 신돈은 그냥 스님이에요.

00:34:23.187 --> 00:34:25.051
보잘 것 없는 스님이었습니다.

00:34:25.151 --> 00:34:28.624
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
권력을 딱 준 거예요.

00:34:28.724 --> 00:34:34.011
신돈이 과감하게 막 이런
액션을 취했던 거야.

00:34:34.111 --> 00:34:37.714
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.

00:34:37.814 --> 00:34:39.416
정말 단호했어요.

00:34:39.516 --> 00:34:41.987
그런데 문제가 생겨요.

00:34:42.087 --> 00:34:47.563
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나?

00:34:47.663 --> 00:34:54.761
그 사람을 파악하려면 권력을
줘봐라, 라고 이야기합니다.

00:34:54.861 --> 00:34:58.205
초반부에는 괜찮았거든요.

00:34:58.305 --> 00:35:05.281
그런데 권력을 주고 그
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다보니

00:35:05.381 --> 00:35:07.954
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.

00:35:08.054 --> 00:35:10.868
폭정을 일삼아요, 그
권력을 가지고요.

00:35:10.968 --> 00:35:15.204
결국 신돈은 피살당합니다.

00:35:15.304 --> 00:35:18.268
피살당하고 공민왕도 피살당해요.

00:35:18.368 --> 00:35:19.655
신돈 피살 이후에.

00:35:19.755 --> 00:35:22.695
결국 고려의 개혁은 그렇게
끝나버리게 되는 거야.

00:35:22.795 --> 00:35:26.662
인터넷 기사에서, 어디서 봤지?
페이스북에서 봤나.

00:35:26.762 --> 00:35:32.575
기사를 봤더니 권력을 가진
사람들의 뇌를 연구했는데

00:35:32.675 --> 00:35:38.064
제일 떨어지는 게 뭔지 아니?
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.

00:35:38.164 --> 00:35:40.518
아마 그렇지 않았을까
생각이 들어요.

00:35:40.618 --> 00:35:43.904
그다음에 이거는 성균관인데

00:35:44.004 --> 00:35:48.342
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 유교
기관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.

00:35:48.442 --> 00:35:56.347
문화사 파트에서 다시 보겠지만 고려의
교육 제도는 국자감이 있었지.

00:35:56.447 --> 00:35:58.658
국가 최고 교육 기구,
국자감이 있는데.

00:35:58.758 --> 00:36:02.010
이 국자감이 나중에
성균관으로 바뀌거든.

00:36:02.110 --> 00:36:06.680
그런데 국자감 안에는 문과 유학부,

00:36:06.780 --> 00:36:09.035
기술학부, 이과라고 생각하면 돼.

00:36:09.135 --> 00:36:10.625
문과, 이과가 같이 있었어.

00:36:10.725 --> 00:36:12.555
유학부와 기술학부가.

00:36:12.655 --> 00:36:17.488
그런데 공민왕은 성균관,
국자감이 변화한 거지.

00:36:17.588 --> 00:36:20.896
여기서 기술학부를 빼버린 거야.

00:36:20.996 --> 00:36:24.633
오로지 뭐만 연구할 수 있게?
유학만 연구할 수 있게.

00:36:24.733 --> 00:36:27.287
그것을 우리는 이렇게
표현을 합니다.

00:36:27.387 --> 00:36:30.807
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
기구로 바꿔버렸다.

00:36:30.968 --> 00:36:32.950
공민왕의 개혁.

00:36:33.050 --> 00:36:40.811
그다음에 앞서도 봤지만 홍건적 2차 침입에
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는 거.

00:36:40.911 --> 00:36:44.636
그리고 요동 지방을 정벌하는
데 앞장을 서기도 합니다.

00:36:44.736 --> 00:36:48.007
누구를 파견했냐면 이성계와
지용수가 되겠습니다.

00:36:48.107 --> 00:36:49.703
큰 의미는 없어요.

00:36:49.803 --> 00:36:52.216
공민왕 자체는 중요해.

00:36:52.316 --> 00:36:56.696
그다음에 공민왕 이후에 어떤 일이
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36:56.796 --> 00:36:58.527
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

00:36:58.627 --> 00:37:00.192
공민왕이 피살당했죠?

00:37:00.292 --> 00:37:02.632
그다음에 우왕이 들어옵니다.

00:37:02.732 --> 00:37:06.534
그다음이 창왕인데 어떤
일이 벌어졌냐면,

00:37:06.634 --> 00:37:12.135
우왕 시기에 명나라에서
시비를 걸어요.

00:37:12.235 --> 00:37:16.608
명나라가 아래쪽부터 올라왔지?

00:37:16.708 --> 00:37:18.979
원나라는 도망가고 있었어요.

00:37:19.079 --> 00:37:20.963
거의 원나라가 무너졌습니다.

00:37:21.063 --> 00:37:25.356
무너지고 명나라가 무슨
시비를 걸었는가.

00:37:25.456 --> 00:37:29.615
너네 이거 내놔, 이렇게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37:29.715 --> 00:37:33.504

뭐를 내놔? 공민왕
때 여기가 뭐였죠?

00:37:33.604 --> 00:37:35.142
쌍성총관부.

00:37:35.242 --> 00:37:38.900
우리가 뭐로 수복을 했지?
무력으로 다시 되찾아왔단 말이야.

00:37:39.000 --> 00:37:41.897
그런데 명나라에서 이거를
가지고 시비를 건 거야.

00:37:41.997 --> 00:37:44.228
이거 너네 거 아니잖아,
이거 원나라 거잖아.

00:37:44.328 --> 00:37:47.096
원나라? 내가 물리쳤는데,
그러면 이거 누구 거다?

00:37:47.196 --> 00:37:48.705
이것도 내 거.

00:37:48.805 --> 00:37:51.759
그러니까 너네 가라.

00:37:51.859 --> 00:37:56.310
그리고 우리가 여기에
명나라에서 부서를 만들겠다.

00:37:56.410 --> 00:38:01.064
철령위라는 부서를
설치하겠다는 거예요.

00:38:01.164 --> 00:38:04.604
이 영토를 가져갈게,
라는 거예요, 명나라가.

00:38:04.704 --> 00:38:06.802
그러면 고려 입장에서 가져가십시오.

00:38:06.902 --> 00:38:08.994
아니잖아, 싸워야 될 거 아니니.

00:38:09.094 --> 00:38:15.861
그래서 우왕 시기에 우왕의 장인이
누구냐면 최영 장군이야.

00:38:15.961 --> 00:38:23.496
그래서 둘이 결합을 해서 저런
야비한 명나라 가만 두지 않겠어.

00:38:23.596 --> 00:38:27.858
일단 명나라를 치려면 명나라는
만리장성 안쪽에 있거든.

00:38:27.958 --> 00:38:30.765
그러면 이쪽 지방을
요동이라고 이야기를 해.

00:38:30.865 --> 00:38:34.252
여기부터 먹어야겠다고
생각을 합니다.

00:38:34.352 --> 00:38:36.710
요동부터 먹어야지.

00:38:36.810 --> 00:38:44.589
그래서 우왕과 최영 장군은 결합을 해서
이 요동을 정벌하자고 이야기합니다.

00:38:44.689 --> 00:38:48.407
결국 이 요동을 근거지로 해서
명과 대립하겠다는 거죠.

00:38:48.507 --> 00:38:50.656
그리고 시키는 거야, 누구한테?

00:38:50.756 --> 00:38:52.989
야, 성계야 갔다와라.

00:38:53.089 --> 00:38:56.502
성계 너 갔다와야 되겠다,
명을 내린 거예요.

00:38:56.602 --> 00:38:58.880
그런데 이성계는 찝찝합니다.

00:38:58.980 --> 00:39:03.411
아니 명나라와 내가 싸운다고?

00:39:03.511 --> 00:39:08.006
그러면 이성계 어떻게 되겠습니까?
가루가 될 가능성이 많죠.

00:39:08.106 --> 00:39:14.969
이성계는 어쨌든 명을
받았으니까 궁시렁 궁시렁,

00:39:15.069 --> 00:39:18.786
궁시렁 궁시렁 욕하면서
올라갔단 말이야.

00:39:18.886 --> 00:39:21.672
그리고 요동은 여기
무슨 강이 있습니까?

00:39:21.772 --> 00:39:23.871
압록강이 있지.

00:39:23.971 --> 00:39:26.170
압록강을 건너면 요동이야.

00:39:26.270 --> 00:39:27.854
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.

00:39:27.954 --> 00:39:32.907
그래서 궁시렁 궁시렁 하면서
압록강이 이렇게 강이 있으면

00:39:33.007 --> 00:39:36.008
여기 건너면 전쟁이거든.

00:39:36.108 --> 00:39:40.021
여기까지 왔습니다,
압록강 유역까지.

00:39:40.121 --> 00:39:42.362
부하 장군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.

00:39:42.462 --> 00:39:45.434
형님, 이렇게 가면 안
됩니다, 우리 죽습니다.

00:39:45.534 --> 00:39:48.815
가만히 있어 봐, 궁시렁 궁시렁.

00:39:48.915 --> 00:39:52.745
여기 압록강 유역에
섬이 하나 있어요.

00:39:52.845 --> 00:39:55.506
우리 서울 한강에 여의도가
있듯이, 이런 섬이 있거든.

00:39:55.606 --> 00:39:57.706
이게 위화도였어.

00:39:57.806 --> 00:40:01.090
궁시렁 궁시렁 대면서
또 와, 여기까지.

00:40:01.190 --> 00:40:03.493
진짜 갈 때까지 온 거예요.

00:40:03.593 --> 00:40:05.579
여기만 넘으면 싸움이니까.

00:40:05.679 --> 00:40:10.157
이때 이성계가 안 되겠다,
짐 챙겨라 가자.

00:40:10.257 --> 00:40:12.318
빽 해버린 거예요.

00:40:12.418 --> 00:40:14.535
이게 위화도 회군이야.

00:40:14.635 --> 00:40:17.953
돌아와서 누구부터 죽여?
개경을 친 거예요.

00:40:18.053 --> 00:40:22.114
개경을 치고 누구부터
죽여버렸냐면 나를 보낸 놈들.

00:40:22.214 --> 00:40:24.243
최영부터 박살을 내버립니다.

00:40:24.343 --> 00:40:26.943
그리고 우왕을 폐위시켜버려요.

00:40:27.043 --> 00:40:32.097
실질적으로 위화도 회군으로
이성계가 권력을 잡아버린 거야.

00:40:32.197 --> 00:40:33.975
그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요.

00:40:34.075 --> 00:40:36.915
그런데 그 논리가 뭔지 아니?
왜 빽을 했는지?

00:40:37.015 --> 00:40:38.831
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.

00:40:38.931 --> 00:40:42.021
이제 농번기다, 농민들
피곤할 텐데 어떻게 가냐.

00:40:42.121 --> 00:40:45.828
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, 작은
나라가 큰 나라를 어떻게 치냐.

00:40:45.928 --> 00:40:51.682
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오는데
눅눅해질 텐데 어떻게 가냐.

00:40:51.782 --> 00:40:57.487
그러면 맑은 날, 농번기가
아닌 날만 전쟁을 해야 되니?

00:40:57.587 --> 00:40:58.807
아니라는 거죠.

00:40:58.907 --> 00:41:02.416
그런 핑계를 대면서 빽을 해서
권력을 잡아버리게 됩니다.

00:41:02.516 --> 00:41:04.204
그게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야.

00:41:04.304 --> 00:41:05.284
중요하겠지.

00:41:05.384 --> 00:41:09.625
그리고 이제 우왕을 폐위시키고
누구를 옹립했냐면

00:41:09.725 --> 00:41:12.507
창왕을 옹립하게 됩니다.

00:41:12.607 --> 00:41:17.667
이 창왕 때 앞서 박위의
쓰시마섬 정벌이 있었고요.

00:41:17.767 --> 00:41:20.896
이 창왕도 또 폐위를 시켜버려요.

00:41:20.996 --> 00:41:25.372
그러고 나서 누구를 옹립하게
되냐면 마지막 왕이야.

00:41:25.472 --> 00:41:31.007
공양왕을 옹립하게 되는 거지.

00:41:31.107 --> 00:41:34.228
공손하게 양보하는 왕,
이렇게 가면 돼요.

00:41:34.328 --> 00:41:38.369
하지만 실권자는 누구다?
당연히 이성계라는 것.

00:41:38.469 --> 00:41:43.695
그런데 모든 정치적인
액션에는 명분이 필요해.

00:41:43.795 --> 00:41:49.198
그러면 우왕을 왜 폐위시키고
창왕을 왜 폐위시켰는지에 대한

00:41:49.298 --> 00:41:50.967
명분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.

00:41:51.067 --> 00:41:53.202
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.

00:41:53.302 --> 00:41:59.122
폐가입진이라고 이야기를 해.

00:41:59.222 --> 00:42:04.142
폐, 가짜를 폐위시킨다.

00:42:04.242 --> 00:42:07.605
우왕이나 창왕은 가짜다.

00:42:07.705 --> 00:42:10.883
왕씨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

00:42:10.983 --> 00:42:16.899
그러니까 가짜를 없애고
진짜를 옹립한다는 거죠.

00:42:16.999 --> 00:42:19.910
진짜가 누구다? 공양왕이다.

00:42:20.010 --> 00:42:22.948
그러면 얘네들은 왕씨가
아니라 무슨 성씨냐?

00:42:23.048 --> 00:42:26.915
이들은 신씨다.

00:42:27.015 --> 00:42:30.937
여러분 신씨 누구 있었지? 신돈.

00:42:31.037 --> 00:42:35.434
얘네들은 신우, 신창으로
신돈의 자식이다.

00:42:35.534 --> 00:42:37.947
왕씨 가문이 아니다,

그러니까 다 가짜야.

00:42:38.047 --> 00:42:43.740
그러니까 진짜 왕씨 가문을
데려와야 된다는 논리로

00:42:43.840 --> 00:42:45.980
공양왕을 옹립하는 거야.

00:42:46.080 --> 00:42:48.698
폐위시켜버리고 실권은
자기가 잡고요.

00:42:48.798 --> 00:42:51.433
그러니까 덮어씌운 거죠.

00:42:51.533 --> 00:42:53.760
이게 폐가입진이라는 명분입니다.

00:42:53.860 --> 00:42:56.966
그리고 공양왕 때
결국 어떻게 된다?

00:42:57.066 --> 00:43:04.762
공양왕을 끝으로 이성계가 조선을
건국해서 왕이 되는 거죠.

00:43:04.862 --> 00:43:07.256
그 과정 됐고요.

00:43:07.356 --> 00:43:10.574
이게 고려 후기 개혁 정치였습니다.

00:43:10.674 --> 00:43:16.120
그다음에 고려 경제 파트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3:16.220 --> 00:43:19.662
정치에서 많이 행했기
때문에 빨리 넘어갈 거는

00:43:19.762 --> 00:43:21.139
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.

00:43:21.239 --> 00:43:23.512
먼저 고려의 경제
정책, 재정입니다.

00:43:23.612 --> 00:43:26.667
재정 관할 부서는
호부와 삼사가 있는데

00:43:26.767 --> 00:43:29.435
이 호부는 지금의 재정부야.

00:43:29.535 --> 00:43:33.073
뭐를 작성하냐면 양안과 호적.

00:43:33.173 --> 00:43:36.736
그러면 양안은 뭐냐? 토지 문서.

00:43:36.836 --> 00:43:40.436
토지세가 있잖아, 그래서
토지 문서를 작성하고.

00:43:40.536 --> 00:43:43.273
호적은 사람 수를 세야 되겠죠.

00:43:43.373 --> 00:43:46.699
그래서 집을 파악하는 거야.

00:43:46.799 --> 00:43:51.238
이게 호부, 지금의 재정부에서
만든 내용이 되겠고요.

00:43:51.338 --> 00:43:58.314
그다음에 삼사는 오로지 화폐 출납과
곡식의 출납 회계만을 담당하게 됩니다.

00:43:58.414 --> 00:44:03.292
그다음에 수취제도가 있는데 이거는
빨리 보고 넘어가면 돼.

00:44:03.392 --> 00:44:06.460
조세, 10분의 1만 걷어요.

00:44:06.560 --> 00:44:09.267
하지만 좋은 땅이 있고
나쁜 땅이 있겠네.

00:44:09.367 --> 00:44:11.254
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.

00:44:11.354 --> 00:44:14.785
그다음에 역, 역은
군대도 가야 되고

00:44:14.885 --> 00:44:16.797
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해야 되겠죠.

00:44:16.897 --> 00:44:20.763
군대 가는 군역, 그다음에
요역은 노동력 제공.

00:44:20.863 --> 00:44:24.456
성을 쌓아야 돼, 성을 쌓기
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지.

00:44:24.556 --> 00:44:26.909
그거를 무상으로 제공해줘야 됩니다.

00:44:27.009 --> 00:44:28.575
이게 또 세금이었어.

00:44:28.675 --> 00:44:31.483
그래서 군역과 요역의
의무가 있었다.

00:44:31.583 --> 00:44:34.010
그다음에 공납.

00:44:34.110 --> 00:44:37.295

이 공납은 집에 부과를
하는 거야, 특산물로.

00:44:37.395 --> 00:44:40.355
상공과 별공은 뭐냐면

00:44:40.455 --> 00:44:43.700
상공은 항상 정기적으로
내는 특산물.

00:44:43.800 --> 00:44:47.548
별공은 때때로 수시로
내는 특산물이란다.

00:44:47.648 --> 00:44:52.618
그다음에 볼 거는 토지
제도가 되겠습니다.

00:44:52.718 --> 00:44:57.396
뭐가 있냐면 전시과
제도가 있습니다.

00:44:57.496 --> 00:45:00.939
이 전시과 제도는
어떻게 구성이 되냐면

00:45:01.039 --> 00:45:05.121
관리들에게 주었던 토지도 전시과야.

00:45:05.221 --> 00:45:07.792
2개 합친 용어가 되는 거야.

00:45:07.892 --> 00:45:11.041
전지와 시지, 합쳐서 전시과인데.

00:45:11.141 --> 00:45:14.210
전지는 수조권, 수조권이 뭐더라?

00:45:14.310 --> 00:45:17.857
거둘 수, 세금 조, 조세 조.

00:45:17.957 --> 00:45:21.077
세금을 거둘 수 있는
권리, 누구한테 있었다?

00:45:21.177 --> 00:45:23.014
관리들한테 있었지.

00:45:23.114 --> 00:45:27.920
국가에서는 관리들에게 월급을
주는 대신에 수조권을 줬어.

00:45:28.020 --> 00:45:31.749
너 저기 가서 재네들한테
세금 걷어서 네가 써.

00:45:31.849 --> 00:45:35.355
이게 수조권이에요,
그래서 수조권이 전지.

00:45:35.455 --> 00:45:37.911

그다음에 시지는 땔감입니다.

00:45:38.011 --> 00:45:39.723
땔감도 중요한 자원이죠.

00:45:39.823 --> 00:45:44.670
합쳐서 전시과 제도, 관리들의 월급
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.

00:45:44.770 --> 00:45:49.132
그리고 이런 전시과 제도는 전국
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.

00:45:49.232 --> 00:45:51.772
세습이 불가. 어떨 때?

00:45:51.872 --> 00:45:54.714
퇴직하거나 사망시
반납하는 게 원칙이었다.

00:45:54.814 --> 00:45:57.547
하지만 이거는 안 해도 돼.

00:45:57.647 --> 00:45:59.800
그리고 전지와 시지가
뭔지만 알면 돼.

00:45:59.900 --> 00:46:01.527
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기로 했지?

00:46:01.627 --> 00:46:06.363
그다음에 전시과 제도의 의미,
전지와 시지는 중요하고.

00:46:06.463 --> 00:46:09.520
그다음에 종류, 이게
더 중요하단다.

00:46:09.620 --> 00:46:12.550
과전, 과전이 뭐냐?

00:46:12.650 --> 00:46:17.330
문무 관리에게 주었던 세금
걷을 수 있는 권리.

00:46:17.430 --> 00:46:21.469
이거를 세 글자로 수조권이라고
이야기했죠, 과전이고요.

00:46:21.569 --> 00:46:23.398
공음전 있네요.

00:46:23.498 --> 00:46:29.087
몇 품 이상? 5품 이상 관리들에게
지급된 토지, 공음전.

00:46:29.187 --> 00:46:35.097
한인전, 그러면 5품 이상에게도
줬으니까 6품 이하도 줘야 되겠지.

00:46:35.197 --> 00:46:41.450

그래서 이거는 6품 이하 관리
자식들에게 준 토지예요.

00:46:41.550 --> 00:46:42.949
그런데 구별짓지 마십시오.

00:46:43.049 --> 00:46:44.523
공음전은 몇 품 이상? 5품 이상.

00:46:44.623 --> 00:46:46.698
한인전은 6품 이하,
이렇게 가면 돼.

00:46:46.798 --> 00:46:49.311
그다음에 쉬워, 구분전이 있지.

00:46:49.411 --> 00:46:53.246
구분전은 이렇게 외우면 돼.

00:46:53.346 --> 00:46:58.276
구 자가 이거란다, 입 구 자야.

00:46:58.376 --> 00:47:00.210
먹어야 살 거 아니니.

00:47:00.310 --> 00:47:03.165
그래서 먹고 살라고
주는 토지입니다.

00:47:03.265 --> 00:47:07.135
그러면 어떤 거냐? 하급
관리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.

00:47:07.235 --> 00:47:09.164
연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.

00:47:09.264 --> 00:47:11.703
구분전, 가족들 먹고 살라고.

00:47:11.803 --> 00:47:15.213
그리고 군인의 유가족.

00:47:15.313 --> 00:47:18.768
아빠가 군인인데 전쟁통에
행방불명되거나 죽었습니다.

00:47:18.868 --> 00:47:21.838
그러면 가족들 어떻게 살아?
못 살겠지.

00:47:21.938 --> 00:47:25.455
그때 주는 토지가 뭐?
구분전이야, 먹고 살라고.

00:47:25.555 --> 00:47:26.475
이해 됐죠?

00:47:26.575 --> 00:47:29.113
그다음에 내장전, 왕실 경비.

00:47:29.213 --> 00:47:30.164

왕실 토지고요.

00:47:30.264 --> 00:47:32.255
그다음에 공해전, 공공 기관.

00:47:32.355 --> 00:47:36.678
이렇게 가면 돼, 관청
경비를 조달하는 토지.

00:47:36.778 --> 00:47:45.340
그다음에 이거 외역전은 지방의
행정을 담당하고 있는

00:47:45.440 --> 00:47:48.356
향리들에게 주었던 토지고요.

00:47:48.456 --> 00:47:52.023
그다음에 군인전은 군인들에게
지급된 토지가 됩니다.

00:47:52.123 --> 00:47:54.819
오히려 이런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.

00:47:54.919 --> 00:48:00.209
그러면 이런 전시과 제도가
어떻게 변화됐는지 볼게요.

00:48:00.309 --> 00:48:02.425
세 단계를 통해서 변화가 될 거야.

00:48:02.525 --> 00:48:06.637
맨 처음에 태조 때는
역분전이 있었어요.

00:48:06.737 --> 00:48:08.730
이 역분전은 뭐냐?

00:48:08.830 --> 00:48:13.027
역분전은 태조왕건 시기에
논공행상에 따라서

00:48:13.127 --> 00:48:16.092
토지를 많이 주고
적게 주는 거예요.

00:48:16.192 --> 00:48:17.275
이해됐니?

00:48:17.375 --> 00:48:22.384
논공행상, 공을 논하고
상을 준다는 거예요.

00:48:22.484 --> 00:48:25.273
한마디로 지극히 주관적이야.

00:48:25.373 --> 00:48:34.017
이 공을 논하고 상을 주는데
왕의 입장에서 봐봐.

00:48:34.117 --> 00:48:43.041
월급이라는 게 알고 보면

직급에 따라서 결정되겠지.

00:48:43.141 --> 00:48:45.811
회사 같으면 사장님은 더 많이 받고

00:48:45.911 --> 00:48:50.018
그리고 그냥 일반 사원은 조금 적게
받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잖아.

00:48:50.118 --> 00:48:52.812
그러면 공무원 집단은
어떻게 되겠니?

00:48:52.932 --> 00:48:58.509
공무원 집단도 품계에 따라서,

00:48:58.589 --> 00:49:01.032
품계에 따라서 월급이
결정돼야 돼요.

00:49:01.132 --> 00:49:04.360
그런데 역분전은 그게 아니야.

00:49:04.460 --> 00:49:07.413
그게 아니라 이런 거
다 무시하는 거예요.

00:49:07.513 --> 00:49:11.190
무시하고 월급은 내가 결정해,
이렇게 가는 거예요.

00:49:11.290 --> 00:49:13.605
그래서 왕건이 결정하는 거야.

00:49:13.705 --> 00:49:17.452
너는 공이 많으니까 관직이 높지
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.

00:49:17.552 --> 00:49:19.475
이렇게 가고요.

00:49:19.575 --> 00:49:22.280
관직이 높은 애들,
너는 공이 별로 없네?

00:49:22.380 --> 00:49:25.332
그러면서 너는 조금 가져,
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.

00:49:25.432 --> 00:49:27.440
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됐겠죠.

00:49:27.540 --> 00:49:31.158
그래서 이거를 바꾸는
거야, 이 역분전을.

00:49:31.258 --> 00:49:34.293
뭐로? 전시과 제도로
바꾸게 됩니다.

00:49:34.393 --> 00:49:37.218

그게 시정 전시과가 되는 거야.

00:49:37.318 --> 00:49:39.201
이렇게 가면 됩니다.

00:49:39.301 --> 00:49:41.675
시작하고 정했다, 전시과 제도를.

00:49:41.775 --> 00:49:46.316
이거는 경종 때인데 무의미하고요.

00:49:46.416 --> 00:49:49.941
경종은 광종 다음 임금이야.

00:49:50.041 --> 00:49:53.852
관직 등급이 있어야 되겠죠.

00:49:53.952 --> 00:49:56.539
하지만 이게 조금 웃깁니다.

00:49:56.639 --> 00:50:00.578
이 관직 등급보다는,
여러분이 시험에 맞추려면

00:50:00.678 --> 00:50:03.398
이거를 엑스, 이렇게 그어놔야 돼.

00:50:03.498 --> 00:50:08.324
이것보다는 뭐다?
인품에 따라서 줬다는 거죠.

00:50:08.424 --> 00:50:10.656
인품이 중요한 거야.

00:50:10.756 --> 00:50:15.991
아니 인품이 뭐니? 사람의 품격,
도리 뭐 이런 거 아닙니까?

00:50:16.091 --> 00:50:19.789
그러면 딱 보고 관직 등급보다는

00:50:19.889 --> 00:50:23.066
너는 관직이 낮은데 인품이
좋아, 그러니까 다 가져.

00:50:23.166 --> 00:50:27.350
관직이 높은데 너는 인품이
안 좋아, 안 돼.

00:50:27.450 --> 00:50:29.361
엄청 주관적이죠.

00:50:29.461 --> 00:50:32.155
그래서 학문적으로는
이렇게 이야기해.

00:50:32.255 --> 00:50:34.579
태조 때 역분전 주관적이었지.

00:50:34.679 --> 00:50:38.843
이게 전시과 제도로 시스템화된

게 시정 전시과다.

00:50:38.943 --> 00:50:41.696
여전히 주관적이다.

00:50:41.796 --> 00:50:45.720
세상은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
바뀌어야 됩니다.

00:50:45.820 --> 00:50:47.919
그래서 주관성을 배제하는 거예요.

00:50:48.019 --> 00:50:50.630
주관성을 없애겠다,
공정하게 주겠다.

00:50:50.730 --> 00:50:52.539
개정한 거야.

00:50:52.639 --> 00:50:54.021
뭐를? 전시과 제도를.

00:50:54.121 --> 00:50:56.153
누구 때? 목종 때
개정을 하는데요.

00:50:56.253 --> 00:50:59.504
어떻게? 이제는 관등이
중심이라는 거죠.

00:50:59.604 --> 00:51:03.336
합리적이지, 직급에
따라서 주겠다는 거죠.

00:51:03.436 --> 00:51:05.412
뭐 없애버리면서?

00:51:05.512 --> 00:51:08.424
그렇지, 인품을 없애버리게 됩니다.

00:51:08.524 --> 00:51:12.141
또한 관리의 수는 많아질 거야.

00:51:12.241 --> 00:51:15.841
지급될 토지의 수는,
토지는 한정돼있잖아.

00:51:15.941 --> 00:51:20.452
토지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
거예요, 공직자가 많아지니까.

00:51:20.552 --> 00:51:22.932
그러면 많이 줄 수가
없네, 처음부터.

00:51:23.032 --> 00:51:24.857
처음보다 많이 줄 수가 없지.

00:51:24.957 --> 00:51:29.313
그래서 점점 줄여나갑니다, 토지
주는 거를 줄여나가는 거야.

00:51:29.413 --> 00:51:33.825
그리고 개정 전시과 때가
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.

00:51:33.925 --> 00:51:35.560
현직을 더 많이 주는 거야.

00:51:35.660 --> 00:51:42.366
그러면 옛날에는 전직과 현직이
같았어, 받는 양이요.

00:51:42.466 --> 00:51:44.203
퇴직해도 똑같이 받았어요.

00:51:44.303 --> 00:51:48.258
하지만 개정 때가 되면 토지가
부족해지면서 뭐 했다?

00:51:48.358 --> 00:51:54.352
현직을 더 많이 주었다,
이렇게 가는 거야.

00:51:54.452 --> 00:51:55.902
이거는 개정 전시과.

00:51:56.002 --> 00:51:59.709
그리고 마지막으로 또
정비를 합니다.

00:51:59.809 --> 00:52:03.302
이때가 되면 토지가
더욱 부족해진 거야.

00:52:03.402 --> 00:52:07.809
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
이제는 누구는 못 주겠니?

00:52:07.909 --> 00:52:10.681
당연히 해석해 봐.

00:52:10.781 --> 00:52:14.627
전직은 조금 주고 현직은 더
많이 줬어, 현직을 우대했어.

00:52:14.727 --> 00:52:18.504
그런데 토지가 더 없대요,
그러면 누구 안 줘요?

00:52:18.604 --> 00:52:20.891
얘네들 주지 말아야지, 전직은.

00:52:20.991 --> 00:52:23.944
그래서 바뀐 게 경정 전시과야.

00:52:24.044 --> 00:52:27.827
누구만 주겠다? 현직
관료들만 주겠다는 거지.

00:52:27.927 --> 00:52:29.341
당연히 논리 아니니.

00:52:29.441 --> 00:52:31.856
역사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.

00:52:31.956 --> 00:52:35.118
그러니까 되게 인과관계가 있어.

00:52:35.218 --> 00:52:37.685
그것만 파악하면 역사
공부는 쉽습니다.

00:52:37.785 --> 00:52:40.004
단순하게 암기보다는요.

00:52:40.104 --> 00:52:42.427
그래서 현직만 줄게.

00:52:42.527 --> 00:52:45.521
그리고 이때 공음전과
한인전이 지급되는 거야.

00:52:45.621 --> 00:52:47.383
공음전, 몇 품 이상?
5품 이상.

00:52:47.483 --> 00:52:50.678
한인전은 6품 이하.
기억나시죠?

00:52:50.778 --> 00:52:56.216
그리고 이때부터는 토지가 더
없어지니까 녹봉을 지급해.

00:52:56.316 --> 00:52:58.429
녹봉은 현물로 주는 거예요.

00:52:58.529 --> 00:53:02.230
예를 들면 비단, 쌀 이런
거로 줘버리는 거야.

00:53:02.330 --> 00:53:04.439
토지가 부족해지니까.

00:53:04.539 --> 00:53:08.064
이렇게 전시과 제도가 변화되었다.

00:53:08.164 --> 00:53:11.289
이 전시과 제도 별.

00:53:11.389 --> 00:53:15.365
너무 중요해.

00:53:15.465 --> 00:53:20.551
그다음에 경제 생활 계속 보면
귀족, 어떻게 살았겠습니까?

00:53:20.651 --> 00:53:21.580
잘 살았어요.

00:53:21.680 --> 00:53:29.104
그런데 음서, 5품 이상의 아빠를 잘

두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거죠.

00:53:29.204 --> 00:53:30.779
그다음에 공음전 계속 나오고요.

00:53:30.879 --> 00:53:32.426
수조권을 가지고 잘 살았다.

00:53:32.526 --> 00:53:35.367
그리고 사전, 사전은 개인 토지들.

00:53:35.467 --> 00:53:38.836
그다음에 사패, 이런
것들은 몰라도 되는데

00:53:38.936 --> 00:53:42.176
개간을 허가해주는 권리입니다.

00:53:42.276 --> 00:53:47.462
그리고 녹봉, 현물로
받으면서 잘 살았다.

00:53:47.562 --> 00:53:50.177
그리고 이 외거 노비가 있거든.

00:53:50.277 --> 00:53:52.583
노비인데 밖에서
거주하는 노비들이야.

00:53:52.683 --> 00:53:57.245
이들이 쌀, 콩, 배 이런
것들을 납부하기도 합니다.

00:53:57.345 --> 00:53:59.415
이런 것들을 우리는
신공이라고 이야기를 해.

00:53:59.515 --> 00:54:03.794
이거는 사회 면에서 다시 볼
거야, 일단 알아두고요.

00:54:03.894 --> 00:54:05.909
그다음에 농민.

00:54:06.009 --> 00:54:08.303
농민 못 살았다, 끝.

00:54:08.403 --> 00:54:10.558
개인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.

00:54:10.658 --> 00:54:14.320
소작이 뭐냐면 남의 토지를
빌어먹는 거예요.

00:54:14.420 --> 00:54:18.062
그리고 진전, 진전을 개간하는데

00:54:18.162 --> 00:54:21.448
이 진전은 좀 못 쓰는 땅들 있죠?

00:54:21.548 --> 00:54:24.310

이런 것들을 개간해서 근근이
먹고 살았다는 거.

00:54:24.410 --> 00:54:27.132
그다음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지.

00:54:27.232 --> 00:54:28.814
누가 쳐들어왔을 때?

00:54:28.914 --> 00:54:32.612
몽골이 쳐들어왔을 때
강화도로 도망갔잖아요.

00:54:32.712 --> 00:54:36.616
이때 강화도는 습지가 많았어요,
서해안이기 때문에.

00:54:36.716 --> 00:54:39.806
이때 간척사업에
참여하기도 한다는 거.

00:54:39.906 --> 00:54:42.543
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
뭐 해야 돼?

00:54:42.643 --> 00:54:45.640
수리 시설을 만들기도 합니다.

00:54:45.740 --> 00:54:47.729
수리 시설은 이용하다.

00:54:47.829 --> 00:54:49.951
뭐를?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야.

00:54:50.051 --> 00:54:54.238
이렇게 벽골제나 제언, 제방
같은 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.

00:54:54.338 --> 00:54:56.311
먹고 살려고, 큰 의미 없습니다.

00:54:56.411 --> 00:54:59.166
그냥 얘네들은 잘
살았다, 못 살았다.

00:54:59.266 --> 00:55:03.330
그다음에 경제 활동과
관련돼서는 농업이 있는데

00:55:03.430 --> 00:55:07.257
이 농업은 고려 시대가 되면서
시비법이 발전하게 됩니다.

00:55:07.357 --> 00:55:08.715
시비법 우리가 한 번 했었어.

00:55:08.815 --> 00:55:09.928
퇴비 주는 법.

00:55:10.028 --> 00:55:17.956
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력이 보완이

되면서 휴경지가 감소하였다는 거죠.

00:55:18.056 --> 00:55:21.880
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,
노는 땅이 감소해졌다.

00:55:21.980 --> 00:55:23.827
두 번째, 2년 3작.

00:55:23.927 --> 00:55:32.493
밭농사에서는 2년에 콩, 보리, 조 이런
것들을 돌아가면서 경작을 하기도 한다.

00:55:32.593 --> 00:55:35.564
2년 3작까지 가능해졌고요,
더욱 발전하는 거죠.

00:55:35.664 --> 00:55:38.655
그리고 고려 말이 되면
이앙법이 보급이 돼요.

00:55:38.755 --> 00:55:40.896
이앙법은 모내기법이야.

00:55:40.996 --> 00:55:47.771
모판에 모를 떼어서 논에
물을 대고 심는 법이죠.

00:55:47.871 --> 00:55:50.274
이 이앙법이 전래되기도 했고요.

00:55:50.374 --> 00:55:52.216
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.

00:55:52.316 --> 00:55:58.807
이 이앙법의 핵심은 나중에 또
보겠지만 노동력이 감소합니다.

00:55:58.907 --> 00:56:01.427
김매기의 효율성이 증가해.

00:56:01.527 --> 00:56:04.870
그래서 한 사람이 더 넓은
토지를 커버할 수 있단다.

00:56:04.970 --> 00:56:08.909
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
생산량이 늘어나요.

00:56:09.009 --> 00:56:14.548
여기서 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
거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.

00:56:14.648 --> 00:56:18.653
벼와 보리를 심을 수
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.

00:56:18.753 --> 00:56:23.423
그러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노동력은
감소되는 게 이앙법이거든.

00:56:23.523 --> 00:56:26.341
좋잖아, 너무 좋죠.

00:56:26.441 --> 00:56:29.477
그래서 농민들은 이앙법을
막 하려고 해요.

00:56:29.577 --> 00:56:36.367
하지만 어디서만 행해지냐면 일부
남부 지방에서만 행해지는 거야.

00:56:36.467 --> 00:56:41.859
그래서 고려 말 때
이앙법이 보급되었으나

00:56:41.959 --> 00:56:47.260
전국에서 행해지지는 못했다는
거죠, 일부 남부 지방에서.

00:56:47.360 --> 00:56:50.339
왜?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,
이앙법의 전제 조건.

00:56:50.439 --> 00:56:53.071
논에 뭐를 대야 돼? 물.

00:56:53.171 --> 00:56:54.249
물이 있어야 돼.

00:56:54.349 --> 00:56:56.257
논에 물을 대야 되거든.

00:56:56.357 --> 00:56:58.915
그런데 우리는 봄에 가뭄이야.

00:56:59.015 --> 00:57:02.815
만약에 논에 물을 대지 못하면
그 해 쌀 농사는 없어요.

00:57:02.915 --> 00:57:08.970
그래서 일부 강수량이 풍부한 남부
지방에서만 이앙법이 실시된 거야.

00:57:09.070 --> 00:57:12.082
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는
조선 후기야, 명심해야 돼.

00:57:12.182 --> 00:57:15.764
그다음에 문익점이
목화씨를 훔쳐오죠.

00:57:15.864 --> 00:57:17.712
그래서 목화솜 있잖아.

00:57:17.812 --> 00:57:20.563
이때부터 솜이불을 덮었다니까.

00:57:20.663 --> 00:57:23.754
그전에는요? 거적대기
묶고 다닌 거야.

00:57:23.854 --> 00:57:25.567
한겨울에 얼마나 힘들었겠지.

00:57:25.667 --> 00:57:27.367
솜이불 없어요.

00:57:27.467 --> 00:57:32.314
문익점은 우리나라 의생활에 거의
혁명을 가져온 사람이에요.

00:57:32.414 --> 00:57:34.161
공민왕 때 들어와요.

00:57:34.261 --> 00:57:38.050
그리고 원나라의 농사책을
수입한 사람이 있어.

00:57:38.150 --> 00:57:40.097
그게 이암이라는 사람이야.

00:57:40.197 --> 00:57:43.171
그게 뭐냐? 농상집요가 되겠습니다.

00:57:43.271 --> 00:57:44.577
농업의 발전.

00:57:44.677 --> 00:57:48.132
그다음에 수공업은 관청
수공업 중심이었다.

00:57:48.232 --> 00:57:50.783
국가에서 만들어서
국가에서 쓰는 거예요.

00:57:50.883 --> 00:57:52.730
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만드느냐.

00:57:52.830 --> 00:57:54.678
A라는 관청이 있어요.

00:57:54.778 --> 00:57:59.206
관청수공업에서 A는 종이를
만드는 광청이라고 합시다.

00:57:59.306 --> 00:58:01.873
그러면 국가에서 종이를
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.

00:58:01.973 --> 00:58:09.201
그러면 이 관청에 누가 오냐면
종이 만드는 기술자들 있지?

00:58:09.301 --> 00:58:12.975
민간 기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

00:58:13.075 --> 00:58:15.948
얘네들을 동원하는 거야.

00:58:16.048 --> 00:58:17.896
그래서 종이를 만들게 합니다.

00:58:17.996 --> 00:58:21.622
그러면 이 기술자들은 공짜로
가서 종이를 만드는 거야.

00:58:21.722 --> 00:58:23.791
왜? 세금 중에 중요한
게 뭐 있었니?

00:58:23.891 --> 00:58:25.935
역이라는 세금이 있었잖아.

00:58:26.035 --> 00:58:28.509
역을 제공하면서 종이를
만드는 거야.

00:58:28.609 --> 00:58:32.801
그러면 종이를 만약에
1000장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.

00:58:32.901 --> 00:58:37.091
그러면 이 기술자들이 역을 동원해서
가서 1000장을 만들었어.

00:58:37.191 --> 00:58:42.823
그런데 1000장을 채우는
것보다 더 넘었어.

00:58:42.923 --> 00:58:45.492
1500장을 만들었어.

00:58:45.592 --> 00:58:50.230
그러면 이 관청에서는
1000장만 갖습니다.

00:58:50.330 --> 00:58:54.494
그리고 나머지 500장은 세금을
내고 너네가 가서 팔아라.

00:58:54.594 --> 00:58:56.921
이렇게 가는 거야,
이게 관청수공업입니다.

00:58:57.021 --> 00:58:59.621
그러면 공장안이 뭐냐? 명단이야.

00:58:59.721 --> 00:59:03.719
기술자들을 동원해야 되겠지.

00:59:03.819 --> 00:59:07.336
이 명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
종이 만드는 기술자 명단.

00:59:07.436 --> 00:59:10.263
이 명단을 공장안이라고
이야기를 해.

00:59:10.363 --> 00:59:15.194
공장안을 두어서 관청수공업을
하는 거지, 역을 동원하면서.

00:59:15.294 --> 00:59:16.792

그다음에 소 수공업.

00:59:16.892 --> 00:59:18.241
향, 부곡, 소.

00:59:18.341 --> 00:59:22.374
소는 특수행정구역이었죠.

00:59:22.474 --> 00:59:26.731
여기서 수공업 제품들을
약탈하는 거예요, 공물로.

00:59:26.831 --> 00:59:31.493
그다음에 이 내용은 후기야.

00:59:31.593 --> 00:59:35.731
후기가 되면 민영수공업이
발전하게 되었고요.

00:59:35.831 --> 00:59:37.715
그중에 사원 수공업이 있어.

00:59:37.815 --> 00:59:39.391
불교 사원에서 수공업을 하고.

00:59:39.491 --> 00:59:42.764
다만 후기가 되면서 소
수공업은 쇠퇴하게 됩니다.

00:59:42.864 --> 00:59:46.303
공주 명학소에서 망이, 망소이의
난이 나타났기 때문에.

00:59:46.403 --> 00:59:49.273
이거는 사회면에서 다시 볼 거야.

00:59:49.373 --> 00:59:52.139
그다음에 화폐가 있는데요.
이것만 볼까?

00:59:52.239 --> 00:59:55.970
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
건원중보가 됩니다.

00:59:56.070 --> 00:59:59.096
최초의 철전이야, 건원중보.

00:59:59.196 --> 01:00:01.294
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란다.

01:00:01.394 --> 01:00:03.196
은병, 활구.

01:00:03.296 --> 01:00:07.889
이게 일부 유통이 됩니다.

01:00:07.989 --> 01:00:11.341
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.

01:00:11.441 --> 01:00:14.053
가장 대표적인 거 최초의 철전,

01:00:14.153 --> 01:00:15.641
그다음에 은병, 활구.

01:00:15.741 --> 01:00:19.275
이거는 지배층을 중심으로
일부 유통이 됐다.

01:00:19.375 --> 01:00:23.172
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화폐는
절대로 유통되지 않았다.

01:00:23.272 --> 01:00:25.892
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
않았다는 거지.

01:00:25.992 --> 01:00:28.521
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를 썼냐?

01:00:28.621 --> 01:00:31.277
곡식이나 삼베를 쓴
거야, 그게 편하니까.

01:00:31.377 --> 01:00:36.427
국가에서는 이런 화폐를 만들었으나
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.

01:00:36.527 --> 01:00:39.093
이게 중요해.

01:00:39.193 --> 01:00:41.490
시비법은 참고하시고.

01:00:41.590 --> 01:00:47.669
그다음에 고려의 경제와 관련돼서
경제 활동 나오고 있는데요.

01:00:47.769 --> 01:00:52.122
이런 상업, 그다음에
농민과 관련돼서 나오는데

01:00:52.222 --> 01:00:56.850
이거는 우리가 시간상 끊어서 다음
강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.

01:00:56.950 --> 01:00:59.287
또 1시간 넘어버리네요.

01:00:59.387 --> 01:01:02.540
그리고 이거는 오타지.

01:01:02.640 --> 01:01:04.691
농민이 아니라 무역이야.

01:01:04.791 --> 01:01:06.777
무역과 관련된 거 너무 중요하니까

01:01:06.877 --> 01:01:09.872
이거는 다음 시간에 경제
활동과 관련된 내용

01:01:09.972 --> 01:01:14.272
그리고 사회면 접목해서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1:14.372 --> 01:01:19.288
여러분,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.